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
오전 (2부) 7시 30분
오후 (3부) 10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회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2월 9일 (제728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회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던 일

이번 베네수엘라 집회를 가던 중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했다. 그 공항에는 루프트한자 항공사 1등석 체크인카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 입구에 직원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쓸쓸한 한 사건을 목격했다. 어느 허름한 점퍼 차림의 흑인이 가방을 둘러메고 1등석 카운터로 다가오자 직원이 그를 저지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더니 흑인이 주머니에서 티켓을 꺼내 직원에게 내보였다. 그러자 직원은 어쩔 줄 모르면서 그를 들여보냈다. 직원은 흑인의 외모를 보고 1등석 탑승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이것을 보며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삼상16:7)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그러나 사과가 크면 뭇하겠는가? 맛이 좋아야지. 이번 베네수엘라 집회를 배설한 루이스 목사도 외모는 시골영감처럼 생겼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서 가득한 진국이다. 또 메리다의 모세 목사 역시 한낱 양치기처럼 생겼지만, 큰 능력으로 집회 때 10만의 인파를 모았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다. 전 제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려 한 노부부를 경비가 쫓아냈다. 이유는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훗날 이들 부부는 기부하려던 재산으로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하버드 대학은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문구를 붙여놓았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약2:1),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누가 말하는 것은 품질이 좋을수록 포장도 잘하라는 것이다. 스스로 천박하게 만들 필요가 무언가? 어차피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살아야하니 영·혼·육을 아름답게 가꾸어 책잡히는 일이 없어야겠다.

복 받으려면 입 청소부터

2014년 첫 해외집회로 나선 베네수엘라(Venezuela) 바르가스(Vargas)는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집회를 모두 마치고 체육관 사무실에 가르시아(Garcia) 주지사 부부, 비서실장 호세(Jose) 부부, 루이스(Luis) 목사 부부, 카를로스(Carlos) 목사 부부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함께 다과를 나누며 대화의 꽃을 피웠다. 거의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가르시아 주지사도 오늘은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회 소감을 피력해보라는 목사님의 주문에 그는 흥분에 들떠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루이스 목사는 '한국 성도들이 목사님을 더욱 잘 섬

들을 감동시켰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떠나기에 앞서 수도 카라카스(Caracas)에 있는 루이스 목사 교회를 방문하였다.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등단한 목사님은 교회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루이스 목사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설교를 통하여 한국에서부터 신년축복성화와 금요일회 및 주일예배를 통해 거듭 강조하셨던 말의 중요성을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셨다. "우리 인생이란 말(言)을 말(馬) 삼아서 달리는 것입니다. 곧 말을 잘해야 인생을 신나게 달릴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말은 씨와 같아서 심으면 나게 되어있습

단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다르니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 그 결과로 삶의 모습이 성공과 실패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돌리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가게 되어있습니다. 말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이곳에 왔을 때는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고 모든 성도들이 멋진 삶을 누리며 나한테 커피라도 한 잔 대접



베네수엘라에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길 뿐 아니라 세계에 더 나가질 수 있도록 놓아드려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에 목사님을 더 많이 빌려달라'고 말했다. 주지사 부인이나 카를로스 목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생전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고, 호세 비서실장은 '35년 예수를 믿어왔지만,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 속에 허송세월을 해온 것 같다. 그러나 지난 일을 잊고 싶지 않다.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며, 한국성도들에게 '우리는 비록 언어도 인종도 다르지만 천국에서 꼭 만나 한 언어로 찬양하며 한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기쁨을 나누자'는 작별인사로 우리 모

니다. 좋은 씨를 심던 나쁜 씨를 심던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날만 세면 일어나 서로를 축복하기는 커녕 말로 상처를 주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허구한 날, '못산다, 안 산다' 하니 그 부부가 헤어질 수밖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죽겠다, 힘들어' 하니 그 삶이 매일 죽을 맛이지요. 말을 바꿔보세요. '아~,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보, 사랑해', '예들아, 오늘도 파이팅!' 돈이 됩니까?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아니죠?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영혼들의 모습이 분명했다. 루이스 목사는 '오늘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의 머리와 가슴, 입을 청소시켜주셨다'며 목사님의 '영적 청소'에 박수를 보내며 크게 기뻐했다. 당장 3월 말에도 다시 베네수엘라 집회다. 쇠는 달구웠을 때 내리쳐야 한다는 말대로 이제 바짝 달구어진 베네수엘라에 성령의 담금질이 계속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Henry Han



수코카라카스의 루이스 목사 교회 주일예배 풍경



베네수엘라 집회를 주관한 루이스 목사 부부와 함께



가르시아 주지사가 파견한 경찰 사이드카 경호요원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살전5:15~18)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매사 최선을 다하라

미국의 시골학교 선생님이 음악교육을 위해 피아노 한 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갑부였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 포드 회장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열어보니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가 고작 100달러만 보낸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실망치 않고 100달러로 땅콩을 사와 학교부지에 심었고, 그 해 땅콩을 수확하여 팔았습니다. 이것을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선생님은 포드 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의 도움으로 피아노 살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포드회장으로부터 만 달러가 송금되어 왔습니다. 그 안에는 답장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모르는 척 해버리는데,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여기 만 달러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감사요? 물론 흐르는 물 한 컵을 따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선생님이 ‘즉시’, ‘바로’ 나가 땅콩을 사서 심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은 적은 기부금에 불평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땅콩을 사서 심었습니다.

과거는 부도수표, 미래는 약속어음, 현재만이 현금이니 오늘에 충실하라

맞습니다. 승자나 성공한 자들의 단어는 ‘오늘’, ‘바로’입니다. 그러나 패자들의 단어는 언제나 ‘내일’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이익을 남긴 것은 그들의 자본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6절에 있는 ‘바로 가서’에 성공비결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당장 장사를 했기 때문에 갑절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목회 신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목회하기 전, 사업하면서 정치에 뜻을 두고 있을 때 잠시 붓글씨를 배웠는데, 그 때 저를 가르친 스승이 써준 글귀입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글귀가 성경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설교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찬송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로 교회가 부흥되고, 절로 세계가 교구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비결이요, ‘오늘’은 일생뿐 아니라 영원세계까지 바꾸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가르쳐 준 것같이,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



은 모든 사 람을 용서 하오니 우리 죄

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눅11:2-4).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날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는 ‘오늘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이 모여 ‘날마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가 모여 ‘일생’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5~18).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선을 좇으라’고 한 것은 오늘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오늘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일생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역시 ‘항상’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힘들건, 아프건 간에 지금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내일로 미루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조금 있다가’, ‘밥 먹고 하자’ 이러한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직원들도 이제는 제게 익숙해져서 무슨 일을 시작하면 일이 끝날 때까지 밥 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이 늦어도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지’ 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하자’,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했더라면 절대 아들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들려 일을 그르쳤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외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러시아가 다른 계락을 꾸미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 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집에 가지 말고 바로 도서관에 가서 그날 복습했습니다.”

‘TOMORROW(내일)’가 아니라 ‘TODAY(오늘)’이어야 한다

다. 그랬더니 완전하게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최대 전략이 무엇인 줄 압니까? 크리스천을 죽이는 것이요? No. 거야 순교지요. 육에 가두는 거요? 그것 역시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육에 갇혔다고, 사도 바울이 육에 갇혔다고 복음이 정지되었나요? 아니요. 마귀의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해라. 그러나 내일부터 해라.”, “지금 예배 잘 드릴 것 없어, 내일부터 잘 드려.”, “주중에 지금 전도 왜 나가니? 따뜻해진 후에 해도 늦지 않아.”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여러분, 오늘이 더욱 중요한 것은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시대 목사가 설교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 인연교회를 수리하는데, 제가 굴이 콘크리트 계단을 그날 밤 안으로 깨서 없애놓으라고 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고 났 하나, 하고 자나 그 시간이 그 시간인데’ 했답니다.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 틀을 거리면서 해놓고 사무실에 가서 한숨 자고 왔더니 다음 사람이 켜 자리에 타일을 다 붙여놓은 것을 보고 왜 밤새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성경은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엡5:16)고 하였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남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고 하셨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과거는 쓰레기요, 부도난 수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모든 산 자 중에 참예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이니라”(전9:4)고 한 것입니다. 오늘 전도하고, 지금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하고, 지금 효도해야 하고, 지금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능력 밖이요,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입니다.

현재(present)만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present)임을 알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이것은 2003년 네티즌이 뽑은 가장 슬픈 이야기로 채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밍고 쪽팔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였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 가지를 막치는 대로 캐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너네 엄마는 한쪽 눈 없는 병신이나
하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던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으셔서 그런가...
그렇게 나쁜 나쁜친구는 없어졌다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그 말 때문에 이런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을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나는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에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누구야! 이런!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린 딸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우리 아이 올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요! 꺼지라구요!”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이 말을 하곤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날 동창회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그 때문에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니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니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한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던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주었던단다.
그 눈으로 엄마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니가 너무 기뻐했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니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이.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 한쪽을 조여 왔다.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해드리고.
좋은 음식 못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께선 날...
어머니가 눈 병신이 아닌 내 눈이...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안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주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 눈을 빼준 부모.
그것을 모르고 창피했던 자식.
자신들을 위해
심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것도 모르고 손가락질 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
돌을 던지던 회중,
그 속에 당신은 없습니까?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To Be Succeed::

어니스트 셰클턴(Ernest H. Shackleton). 그는 남다른 생존능력으로 자신 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살리고, 위기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오늘날까지 주목받는 인물이다.
1915년 1월 18일,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남극탐험에 나선 영국인 어니스트 셰클턴과 탐험대 28명, 기대와 부푼 가슴도 잠깐이었다. 그들은 곧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 속에 갇히고 만다. 끝없는 빙판 한가운데서 그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만난다. 그것도 자그마치 537일 동안.
그러나 그들은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다 살아 돌아왔다. 그 비결은 어니스트 셰클턴의 지도력 때문이었다.
먼저 탐험대장인 셰클턴은 남극대륙횡단에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

았다. 그는 자신과 부하대원들을 살려야겠다는 책임감에 불탔고, 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또 하나 희생정신이 대단했다. 리더라고 해서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굶은일에 도 술선수범했을 뿐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기 분량의 식량을 부하대원들에게 나누어주는 희생정신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 한 일화다. 추위와 굶주림과 전쟁하던 어느 날, 셰클턴은 배고파 지쳐있는 대원 프랭크 와일드에게 자신은 아직 버틸 만하다며 자기 몫의 비스킷을 내줬다. 그러나 와일드는 그 비스킷을 먹지 않았다. 그는 일기에 ‘수천 파운드를 준다고 해도 이 비스킷을 팔지 않겠다. 셰클턴의 희생정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비스킷 하나가 무려 1,250파운드(230만원)에 팔려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셰클턴이 와일드에게 준 그 비스킷이다.
위기란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 살면서 위기란 계속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한 시대의 백을 그른 사람들은 이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를 탄다. 오히려 파도를 힘입어 너른 바다로 나간다. 위기 때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
위기와 실패를 디딤돌 삼아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걸림돌 삼아 뒤로 물러날 것인가? 2014년, 우리 앞에 위기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당신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 24:10).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운명을 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돌입하려할 무렵, 아테네의 지도자는 자신만만한 말투로 개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가난해서 장기간이나 해외원정은 해보지도 못한 촌놈들이다. 저들은 군자금도 없다. 게다가 이 전쟁은 해군력의 싸움인데, 우리 해군은 세계 최강인데 비해, 농업국인 스파르타의 해군은 우스운 수준이다. 고로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맡아 놓았다.”
한편 숫자는 적지만 당시 고대 세계 최강의 정예 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스파르타의 왕은 자국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아테네는 물질과 장비, 병력은 물론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탁월한 해군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인이한 생각을 버리고 준비에 철저하도록 하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승리를 호언장담한 아테네가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스파르타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잠16:18).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사1:1).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그릇에서 교만과 오만을 빼내세요. 가장 큰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 가족 중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오빠가 있습니다. 동생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오빠임에도 술, 제사 등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들을 제가 몽땅 거절하니 오빠는 늘 서운해 했습니다. 거기다 가족모임은 왜 꼭 주일인지, 항상 가족모임에는 교회를 가야 한다고 빠지다 보니 오빠와 오랜만에 만나면 오빠의 얼굴에는 반가움 한편에 늘 저와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오빠와 저녁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늘 오랜만에 만나면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하듯 술을 권하면 오빠가 그날따라 술도 권하지 않고 가슴 찡한 이야기를 털어냈습니다.

오빠는 산부인과 의사로 대학 교수직을 거쳐 오랫동안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양생이 가장 끝났던 부분이 바로 기형아에 대한 낙태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태아에 대한 낙태가 원래

부터 반대였지만 중증기형아에 대한 낙태는 부모가 의사의 의견을 물으면 그냥 낙태를 찬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 부모와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갔기에 중증 장애아에 대한 낙태는 찬성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오빠에게 어느 날 30대로 보이는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처지인데 오늘은 지방에 와서 아이 상태를 초음파로 확인하고 싶다고요. 들른 부모의 모습과 달리 초음파를 갖다 댄 오빠는 침울한 표정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뇌에 물이 가득 차 있는 태아는 뇌수종, 즉 중증기형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과정도 힘들어 뽀뽀러 아이가 태어나도 정상인에는 한참 못 미치는 장애아일 것이 뻔했습시다. 오빠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낙태에 대해 말했

을 때, 두 부부의 반응은 오빠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부의 말에 감동한 오빠는 “그럼 앞으로 우리병원에 오시면 전액 무료로 진료해드릴 테니 언제든지 아이를 보고 싶으시면 들르십시오.” 라고 답했고, 이후로도 간혹 아이의 상태를 보러 오는 부부는 아이의 점점 커지는 뇌와 상관없이 늘 감사와 행복에 젖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부부가 오빠를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왔다는 부부는 아이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했고, 태어오진 못했다며 동영상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산 후 아이의 뇌에 찌른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은 정상아와 전혀 다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학병

원 의료진들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기적을 이야기 했고, 오빠도 그런 케이스를 본적이 없었기에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중증장애아에 대한 낙태 찬성의 신념도 바뀌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한 젊은 부부의 진실된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서 한동안 기쁨에 눈물을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신앙과 삶으로 오빠에게 선행 영향력을 미친 이름 모를 부부와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한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할렘 루아!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새해가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이 이어져 ‘복 받아라’ 하는 인사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말, 이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건강과 장수, 입신양명하여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러나 그것을 얻어서 누리기 전에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취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솔로몬은 일천 천을 데리고 살았고, 금은보화를 길거리의 돌맹이처럼 흔하게 사용하였으며, 향기나는 백향목 나무를 뿔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존경을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태평성대를 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출중하여 시바의 여왕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귀중한 예물과 함께 먼 길을 찾아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서 가져보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았고, 품고 싶은 여자는 다 품어보았으며,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첫머리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라는 말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단편을 요약하였습니다.

전도서 말미에 기록된 솔로몬의 깨달음은 정말 소중한 진리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

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14).

참된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뒤에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으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의 최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이 말씀이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자유와 방종

::Edu Section::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는 주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고, 그 자유로 인해 우리는 더한 기쁨의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자유의 참된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종종 보인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 자유라면, 방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러짐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젊은이들이 그릇된 기준으로 방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과 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사고하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사람이 당연히 지키며 살아야 할 기본 법규와 도덕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안 돼!’, ‘하지 마!’라는 말들이 자녀의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력을 해친다는 생각으로 너그럽게 수용해

서는 안 된다.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면, 참된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며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 왜 타인에게 폐가 되는지를 모르고 성장하는 것은 결국 부모 자녀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과 일반이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물건을 훔쳐온 아들에게 칭찬을 했던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은 엄마에게 더 큰 칭찬을 듣기 위해 더 값진 물건들을 훔쳐왔고, 어른이 된 후에는 두 손이 결박된 채 재판정에 서게 된다.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 아들은 어머니의 귀를 깨물며 왜 자신을 혼내지 않았냐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랑스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이다.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처놓은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사회에 나가서도 합당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기차

가 레일을 이탈하는 순간, 더 이상 기차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듯이 물론이고, 대형 사고로 이어져 나를 포함한 많은 자들이 다칠 수 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자. 간혹 바쁘거나 귀찮아서 혹은 자녀에 대한 애절한 마음에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들이 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방임이며, 방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명심하자. 목사님은 가끔 말씀하신다. “율법은 우리 삶의 거울이다. 죄와 법을 어기는 것은 방종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자녀가 참된 자유의 실천과 함께 선행되어야 할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와 방종의 확실한 경계를 이해하여 타에 모범이 되고 선망 받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오자유

oh.free@hanmail.net

